

名前:

20세기에 들어서서 세계는 더욱 광
범위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. 지금은 이
미 인터넷만 읽으면 미국이라든지 다른
언어도 모르는 외국인과도 회화가 가
능해졌고, 여러가지로 편리해 졌다고 생
각합니다.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버린 우
리들은 아마도 인터넷이 사라진다면 하
루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
하지만 인터넷만 읽으면 그 정도로 좋다
라든가 그 외, 예를 들면 신문이나 잡지
등은 필요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
신문이나 잡지를 "읽는다" 라고 하는 행위
자체를 저는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.
종이에 적혀져 있는 활자 하나하나에
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
며, 그 내용에 어느샌가 열중하게 만드
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. 그러한
경험을 저는 인터넷에서 발견한 적이
없습니다. 제 경우엔, 인터넷은 다양한
사람들과 만나 소통하기 위해, 그리고

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기 위한 때에
자주 사용하지만, 깊은 감상이라든가 하
는 것은 추구하지 않습니다. 분명히 말
해서, 인터넷에서 "보는" 내용과 신문이나
잡지에서 "읽는" 내용은 저에게 뭘가
다른 기분을 전해주는 것입니다. 따라서
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대로 신문에 서
만 느낄 수 있는 감상, 혹은 잡지 등에
서 즐길 수 있는 「패력」을 무시하고 단
기 편리하니까, 새로운 거니까라는 이유
로 필요없다고 결정지어 버리는 것은 종
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새조음
것이 늘어나 그것을 우선하려는 것은
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로 좋다,
혹은 이미 예전에 뻐던 것은 필요없다
는 생각은 아까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
다. 저는 앞으로 도 인터넷에서만 얻을 수
있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신문이나 잡
지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제대로
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

1800字